행정구역 자율통합 획기적 혜택 준다는데…

광양·무안 여론 선회가 관건

광양만권·무안반도 통합 '가시밭 길'

주민 합의·정치권 이해관계가 변수

정부가 특별교부세 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나서면서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합반대 지역인 광양과 무안은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반대 여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어 '통합'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남 동부권 반응=오현섭 여수시장과 이성웅 광양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26일 비공식적으로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3개 시의 시장은 통합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오는 31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려(麗)를 통합한 데 이어 여수 세계박람회 결정을 앞둔 지난 2007년부터 여수, 순천, 광양의 광역권 통합이 논의됐었다.

하지만, 광양지역 여론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통합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통합 경험을 해본 순천과 여수시 등은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광양시는 광역경제권 통합을 바라고 있다.

순천·여수와의 통합보다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구례·하동·남해를 아우르는 광역경제권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남 동부권 일부 지역은 경남의 하동·남해 등과 합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반도는 '무안'이 관건=지난 1995년부터 목포를 중심으로 4차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무안군은 시 승격을 통한 '자립'을 원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무안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날 '무안사랑포럼'이란 연합단체 창립식을 하고 통합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따라서 '무안반도' 통합은 '무안'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통합시 소재지를 무안읍으로 정하고, 자율통합에 따른 지원 예산을 무안과 신안에 투자하는 등의 다양한 통합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강진과 장흥군의 강진반도 ▲화순·보성·고흥 ▲함평·나주 ▲영광·고창·부안 ▲장성·담양·정읍 등도 통합논의 대상이다. 이 중 강진과 장흥군을 묶는 '강진반도' 통합은 2007년 강진에서 여론조사까지 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장흥지역의 무관심으로 사그라졌다.

◇지역 여론, 정치권 이해관계가 변수=행정구역 통합은 반대 지역 여론을 어떻게 되돌리느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릴 경우 정치권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의 현역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인기 의원 "자율통합 원칙·기준 다시 세워야"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한 뒤, 지방행정체제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려 한다"며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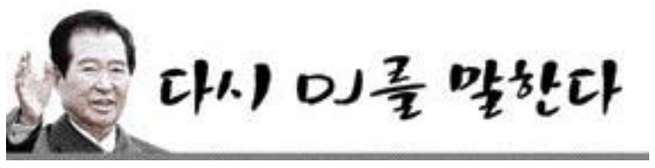
최 의원은 이어"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논의가 근본적인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국가행정의 비효율성 증대와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 간의 갈등 및 통합에서 소외된 인근 자치단체의 지역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동교동 사저 DJ 빈자리

이희호 여사가 27일 동교동을 방문한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 지도부를 접견하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자리가 허전해 보인다. /연합뉴스

"국민을 하늘같이 섬긴 지도자"



❷ 박광태 광주시장

"평생 '빨갱이' 누명과 전라도 사람이라는 맹목적인 질시 속에 살아오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게 돼 야속하기만 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국장기간 동안 '맏상주'로서 옛 전남 도청 분향소를 지킨 박광태 광주시장은 고인의 지난했던 삶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DJ를 측근에서 보좌했던 박 시장은 온갖 용공조작과 음해에 시달렸던 DJ를 보좌하며 자신의 가슴에도 응어리가 맺힌 탓인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DJ맨'으로 불리는 박 시장이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70년대. DJ가 박시장의 강단있는 민주화 투쟁을 눈여겨 본 것이 계기가 됐다. 박 시장은 1972년 민주통일당 인권국장 시절 유신철폐 긴급조치 해제 투쟁 등으로 구속과 수배생활을 되풀이 했다.

당시 DJ는 "내가 모든 일에 자신 있지만, 약점이 하나 있소.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소"라며 비서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태권도 공인 2단의 건장한 '청년'이자 민주투사로 나선 박시장에게 DJ가 자신의 안위를 맡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박 시장은 정계에 입문했고, DJ와 고난의 역정을 함께 하게 됐다.

박 시장은 정치 지도자로서 DJ를 '국민을 하늘 같이 섬긴 지도자'로 기억한다. 정국 현안을 놓고 당의 수뇌부들이 해법을 구할 때마다 DJ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국민의 뜻을 읽고 행하면 바른 정치다. 국민을 하늘 같이 모셔라. 국민 뜻이 어디 있는 지를 살피고, 그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라는 촌철살인이었다.

박 시장은 정치인으로, 시장으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DJ의 금언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DJ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엄한 정치스승이었다. DJ는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들을 따로 불러 호되게 꾸짖었다. 당직자들에게 불출석 의원들의 명단을 보고토록 주문했다고 한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국회의원도 예외 없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은 의원들도 얻어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되면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이 생겨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출직 정치인들을 누구보다 존중했습니다."

박 시장은 눈물 많은 DJ의 성품에 얽힌 일화도 소개했다. 국회의원 공천에서 DJ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DJ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논리와 철학으로 무장한 '이론가'였지만 눈물로 읍소하면 매정하게 돌아서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서민, 소년 소녀 가장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곧바로 지갑을 꺼내 그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쥐어보내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박 시장이 지켜본 DJ의 민주화 투쟁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수십만 군중들이 운집하는 정치 집회는 누가, 언제 목숨을 노릴 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다.

"워낙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디딜 틈없이 몰렸고 사인을 해달라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한 시민의 부탁으로 필기도구와 용지를 선생님께 드렸더니 제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시는 겁니다. '다른 행동 말고 곁에 꼭 붙어 있으라'는 귀엣말을 하시더군요. 평생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오신 그 분을 이해하게 됐죠."

"당신이 나를 지켜주면 좋겠소" 비서 입문

불쌍한 사람들 보면 절대 그냥 못 지나쳐

박광태(당시 비서·오른쪽) 광주시장이 1980년대 민주화 투쟁 당시 이희호 여사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DJ는 80년 5월 17일 밤 11시 30분 무장 군인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박 시장은 당시 동교동에서 DJ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구타당한 뒤 쓰러져 연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DJ는 잠깐 만났다 다시 수년이 지난 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은 물론 사는 곳까지 기억해 내 당사자를 감동시키는 게 다반사였을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고 박 시장은 회고했다./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